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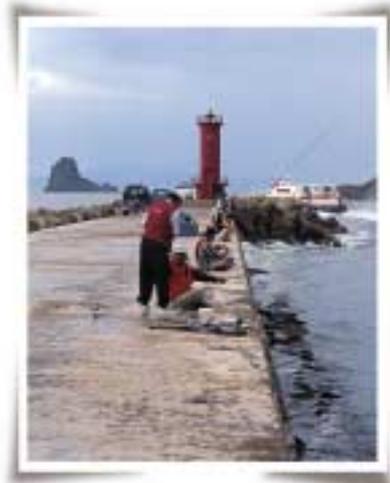


▲ 추자도에서 바라본 제주도, 마라도에서 성산포까지 한라산 몸뚱이리 제주도 전체가 한 눈에 보인다.

남해바다 섬들의 낙원

# 추 자 도

최성민 · 한겨레신문 문화생활부장



좁고 인구가 많은 땅 물에서, 더구나 피서길이면 봄비가 마련인 여정에서 피서여행지로 섬은 매력 만점이다. '나만의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섬을 향해 짐을 꾸린다. 자연의 자애로움과 풍성함이 있고 사람들의 따스한 인정도 살아있는 곳, 이 무렵 여름의 여운도 남아 있으면서 일상적인 주위와는 꽤 이색적인 곳으로 떠나보면 그 여정의 두터운 인상은 오래 기억에 남아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제주도 가는 길목에 있는 추자도가 그런 곳이다. 추자도는 보통의 섬과는 다른 점이 많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생소하지만 수평선 너머 사각지대에서 크고 작은 42개의 섬들이 '떼섬' (추자군도)으로 섬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 섬들엔 '추자 10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풍치가 들어있고, 습새 흑비둘기 등 희귀한 새들이 사는 '새들의 낙원' (사수도)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쯤 멸치 떼 뒤를 따라 다니는 고등어와 삼치가 무더기로 잡혀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추자도는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맑은 날 추자도에서는 완도의 보길도가 코 앞(실제로는 배로 1시간 거리)에 보이고, 진도의 맹골도, 해남 땅끝쪽이 다 보인다. 또 제주도 한라산이 통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라산을 한눈에 다 보기는 날 좋은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더라도 포착하기 어려운 일이다. 추자도에서 한라산이 통째로 보인다는 것은 봉우리에서부터 좌우 산자락 끄트머리, 산허리에 얹혀 있는 오름(기생화산)들, 그리고 마라도까지,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추자도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다리로 이어져 있다. 추자도 주변엔 횡간도와 추포도 등 2개의 유인도가 있다. 횡간도엔 10여 가구가 미역과 돌김 등 해초를 따고 자연산 전복을 잡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주변이 '고기밭' 이어서 물에서 오는 낚시꾼 들 맞는 일이 생계에 보탬이 된다. 추포도엔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의 집 2가구가 있었는데 지난달 한 노인이 돌아가 한 집만 남았다.

먼 바다에 있는 섬들이 대개 애뜻한 정이 담긴 이름을 갖듯이 추자도의 새끼섬들도 그렇다. 푸랭이섬, 섬생이(쥐섬), 다무래미, 약생이, 수령섬, 미역섬, 박미역섬, 납덕이, 큰보름섬, 덜섬, 검은가리, 사자섬, 쇠머리섬.. 이런 섬들의 생김 모습, 그 섬들 주변에 고기가 노는 모습, 그 섬들 사이에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추자 10경' 으로 전해오고 있다.

추자도는 먼 섬인 만큼 질 좋은 생선이 많이 난다. 주로 멸치-고등어-삼치의 '먹이사슬' 순으로

세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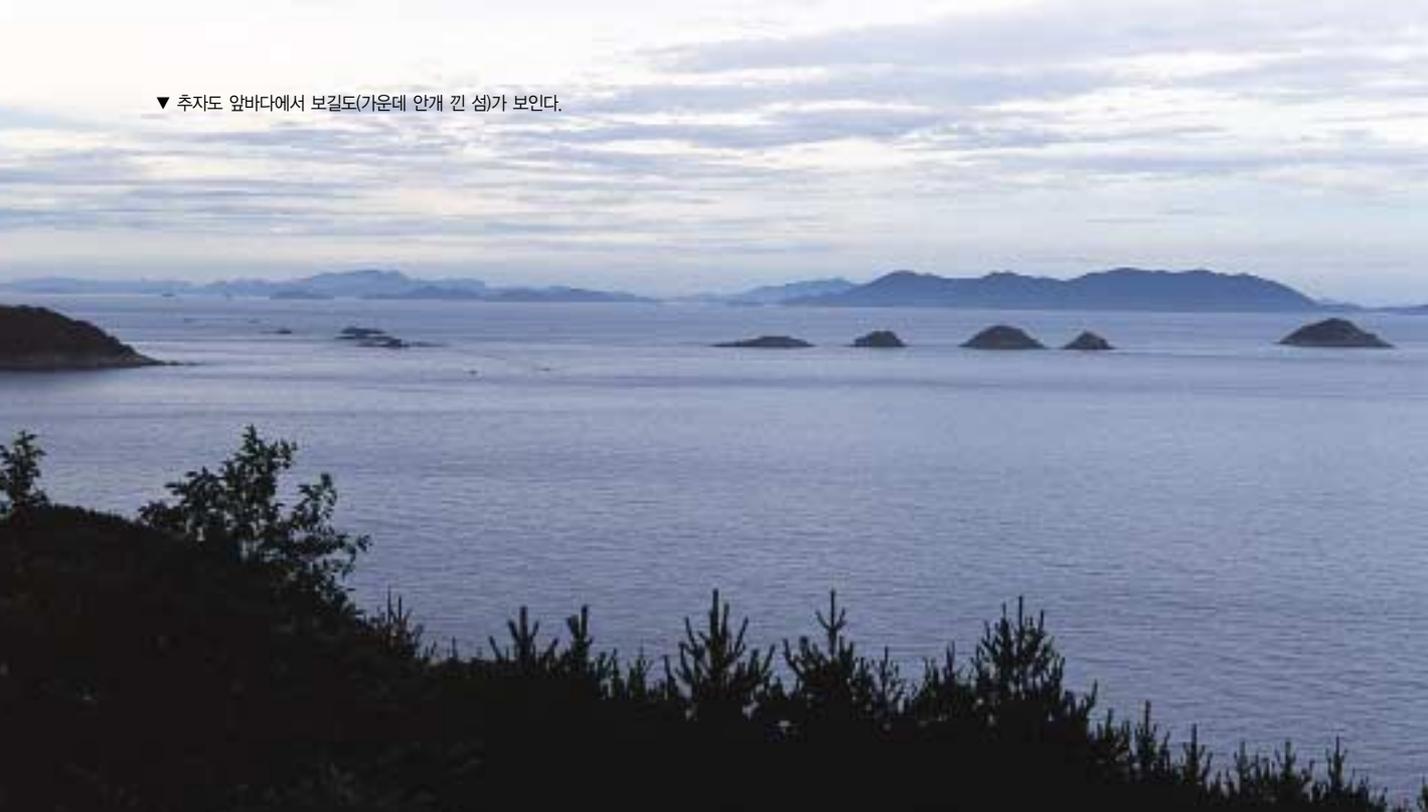
봄부터 7월말까지 멸치가 나며 8월부터 초가을까지는 고등어가, 가을에 들면 서는 삼치가 떼로 잡힌다. 각각 큰 고기가 작은 고기 뒤를 물고 다니기 때문이다. 추자도 부둣



▲ 추자도 멸치젓

가 어판장에서는 새벽마다 갓 잡아온 생선 경매가 열려서 물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이 무렵 추자도 부둣가 방파제는 좋은 낚시터가 된다. 고등어가 잘 물리고, 가끔 삼치도 올라온다. 갓 잡아온 고등어와 삼치를 회로 맛볼 수 있다. 특히 고등어회는 추자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렵다. '추자도 멸치젓' 은 가장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또 '추자도 참조기젓' 도 이곳만의 특산이다. ☞

▼ 추자도 앞바다에서 보길도(가운데 안개 낀 섬)가 보인다.





## ※※ 추자 10경

우리나라 섬들이 군도(群島)를 이루고 있는 곳 가운데 그 섬의 이름을 딴 ‘... 10경’이 적지 않다. 군산 선유도의 ‘선유 10경’, 울릉도의 ‘울릉 10경’, 제주 우도의 ‘우도 10경’, 추자도의 ‘추자 10경’ 등이 그것이다. 이는 섬들의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섬사람들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행길에 이들 10경에 담긴 뜻을 새겨 보면서 자연의 포근함에 가까이 가보자.

‘추자 10경’은 다음과 같다.

- 1 우두일출(牛頭日出)=소머리섬 해돋이, 소 머리 위로 해가 뜨는 듯하다.
- 2 직구낙조(直龜落照)=직구도 저녁노을
- 3 신대어유(神臺漁遊)=하추자 신대바다의 황금어장
- 4 수덕낙안(水德落雁)=수덕도(사자섬) 사자봉에서 기러기들이 먹이를 쫓아 쓴살같이 바다로 내리꽂히는 광경
- 5 석두청산(石頭靑山)=하추자 청도의 머리모양 봉우리와 주변의 푸름
- 6 장작평사(長作平沙)=신양포구(장작지)의 잔 돌이 이루어낸 해변
- 7 망도수향(望島守鄕)=추자도의 맨 동쪽에 있는 망도. 추자 사람들은 타향에서 돌아올 때 고향을 지키는 이 섬을 맨 먼저 보고 가슴이 설렌다.
- 8 횡간추범(橫干追帆)=횡간도 주변으로 흰 돛단배들이 떠 가는 풍경
- 9 추포어화(楸浦漁火)=추포도의 멸치잡이 불빛
- 10 광계창파( 광계滄波)=유배객들은 제주도에 올 때 세상의 인연을 지워버릴 듯 푸르른 관탈섬(광계)의 물결 앞에서 갓을 벗었다.



추자면사무소 (064)742-8401  
홈페이지 : www.bukjejugo.kr

## ※※ 찾아가는 길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군도(섬무리). 제주실호부터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경 126도 15분~126도 24분, 북위 33도 53분~34도에 자리잡고 있다. 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등 4개의 유인도와 직구도, 곡랭이섬 등 38개의 무인도 등 모두 4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곡랭이섬에는 식수와 동굴이 있고, 새댁으로 자랑하는 산무와 달라바 많다.

추자군도 부근 수역은 남해여장의 중심지로 난류성어족의 호유가 많아 연중 어로작업이 활발하며, 고등어, 전갱이, 삼치, 방어, 갈치 등이 잡힌다.

전남 완도에서 매일 오전 8시 추자도로 떠나는 차도선 ‘바다훼리호’(061-555-0655)가 있다. 3시간 걸리며 요금은 편도 2만 3000원이다. 승용차는 편도 8만원 인콰 제주에서 완도로 돌아오는 길에 추자도에 들르는 ‘온바다훼리호’는 제주 2부도에서 오후 3시에 떠난다. 2시간 걸린다.

상추자와 하추자에 대우장과 해변장 등 7곳의 여관과 50여곳의 민박집, 20곳의 식당이 있다. 섬 안에 마을버스가 1대 있어 1시간에 1회 운행한다. 택시는 없다.